

합수 기우제 · 드론 물 공수 퍼포먼스

전주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시민단체 대표 5명 '물 사랑 지킴이' 결의문 낭독 등

전주시민들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는 22일 전주 용흥초등학교 앞 산천 둔치에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제정·선포한 기념일로 올해는 'Nature for water(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를 주제로 물의 날을 기념하고 물 환경의 다양성 회복, 물 관리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시민단체 대표 5명이 '물 사랑 지킴이'로 물 자원 절약에 동참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참여한 시민들은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의 물을 합수하는 기우제 퍼포먼스를 통해 동서남북의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지를 표현했다. 또 세계 최초로 드론산업과 탄소기술 등을 융복합한 신개념 ICT저서포츠인 드론축구의 중추도시답게 드론을 활용한 물 공급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전주시는 22일 용흥초등학교 앞 산천 둔치에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의 물을 합수하는 기우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념행사에서는 △전주 하천에 서식하는 수달 사진 전시 △어류 및 수서곤충 전시 △멸종 위기 동물 손수건 만들기 △재활용컵 화분만들기 등 환경 체험 부스도 마련돼 참석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종료 후에는 삼천 좌·우안을 4개 구역으로 나눠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하천 정화 활동도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물의 날 기념행사가 시민들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

기가 될 바란다"며 "앞으로 물과 하천의 소중함·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효율적인 물 관리와 건강한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어린이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4월~11월까지 전주시 양묘장에서 운영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오색빛깔 봄꽃들이 피어난 호동골 양묘장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한다.

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시 호동골 양묘장 일원에서 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꽃과 함께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동골 양묘장은 전주시가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등 가꾸면서 나비와 벌이 찾아드는 환경으로 바꿨다.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은 전주시와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등 인근 시·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가족·친구 등 10인 이상 전주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 참여한 어린이들은 전주시 양묘장의 꽃과 어울린 자연 학습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계절에 맞춰 피고

지는 꽃 이야기, 꽃잎 물들인 손수건, 나무목걸이 만들기 등 아동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을 편안히 놀이터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 등이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자연놀이터 정기 프로그램과 함께 꽃의 파종과 발아, 이식, 화단·화분 식재까지 꽃의 일생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100일 장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월 단위 정기 프로그램은 신청서를 전자우편(forest366@hanmail.net)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063-281-2676) 또는 전라전주푸른도시추진위원회(063-285-0515)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매년 참여기관이 늘면서 지난 해에는 총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채규남 기자

천연기념물 독수리 구조·치료 후 방사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전북대가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박진호)가 멸종위기종 II급인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를 치료해 22일 오후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 독수리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마을 앞 야산에서 지난 3월 13일 농작물 보호용 울타리 망에 걸린 채로 발견됐다. 며칠 동안 탈진 증세로 인해 비행과 기립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로 급히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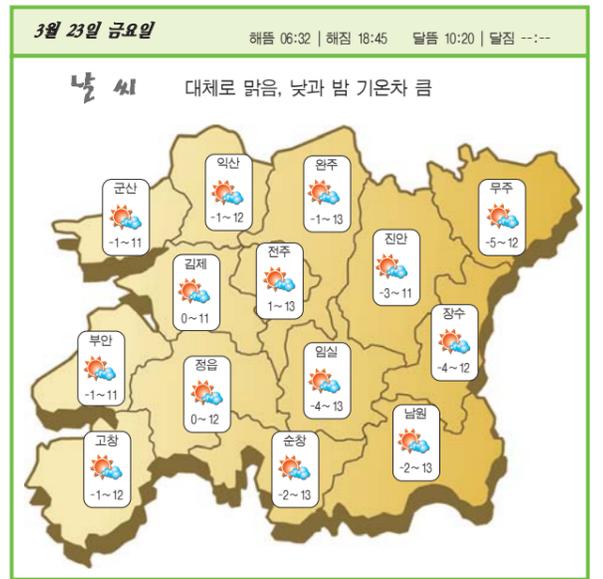
이후 센터 수의사와 재활관리사들은 그간 독수리를 극진히 치료하고 보살폈으며, 자연 적응 훈련까지 모두 마치는 등 건강을 회복해 이날 구조된 곳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방사에는 그간 극진한 치료



를 맡았던 수의사와 재활관리사 등이 모두 함께해 독수리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임해린 수의사는 "독수리 치료와 재활이 힘든 들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러한 방사 행사를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북대 의대 신입생 전국 최다

32명 추가로 142명... 서남대 정원 일부 배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2019학년도 보건 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32명을 전북대 의대에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남대 폐지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 중 32명을 전북대 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19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재 110명에서 142명으로 크게 늘었다. 본교 기준으로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정원이 가장 많은 서울대의대는 135명이다.

이를 통해 의대는 물론 대학 전체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고,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도 전북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그간 대학과 지역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이다"며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같은 정원 배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16개팀 발대식

전라북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16개팀을 선정, 24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중·고등 학생 주축으로 팀당 7~15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2명 이상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다. 발대식에는 작년 우수활동팀의 활동 사례발표와 즉석 플래쉬몹도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12월까지 활동하면서 △금연정책 홍보 △포래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담배의 진실 알리기 등 지정 미션을 수행하며, 팀별 독창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각 팀에는 운영비 6만원이 지원되며, 우수 활동팀에는 학년말에 교육감상 표창과 함께 은누리상품권을 준다. 또 교육청 지정 미션 등 기본 활동을 수행한 서포터즈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상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